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55 | 2022 October



동심동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K-water

K-water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합니다.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현하고 있는
K-water의 마음은 ‘동심동심’ 떠오르고 있습니다.



K water

K-water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쓰며,
댐주변지역 농가를 위해 일손을 보탬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하는 등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K-water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ilovekwater

#kwater국민소통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국민소통을 검색하고
<kwater국민소통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물벚나눔장터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국민소통을 검색

- <kwater국민소통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10월 25일

선물 발송일 11월 15일경

※ 11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물사랑나눔단



#kwater국민소통



#kwater사랑샘터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2. 10 | Vol. 655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2년 10월 1일
통 권 655호
발행인 박재현
편집인 장훈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홍보실
제작·대행·인쇄 (주)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취재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08 제로여행**
'다음'이 더 반짝거릴 보현산담
별의 도시 영천
- 14 제로상점**
푸른 지구를 위해 '지금' 함께 해요
경주 <숲을>
- 18 제로푸드**
한국의 보르도
영천와인
- 20 무해한 사람**
환경을 위한 움직임도 축제처럼 즐기자
최안나 트래쉬버스터즈 CBO
- 24 지구보고서**
기후변화와 문순...
때론 감사하고, 때론 무서운 비
- 26 내가 그린 도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청정 에너지 강국, 독일



“
우리는 원래 재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예전에 중국음식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



30 **두잇두잇**
이게 정말 양말이었다고?
소품이 된 양말

32 **건강처방전**
왜 머리카락은
가을철에 더 잘 빠질까?

34 **수(水)타벅스가 간다**
시원한 음료를 실은
커피차가 청송에 뒀다!

38 **K-water의 수**
K-water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합니다

40 **K-water 리포트**
K-water는 선한 영향력으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44 **K-water 사전**
K-water가 슬기롭게 국민과 소통하는 법

46 **어느 멋진 날**
노력으로 완성한 단 하나뿐인 매트
물관리기획처 직원 5명의
터프팅 매트 만들기

“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0 **마음상담소**
부탁을 예쁘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52 **퀴즈있수다**
탄소중립에 대해 알려주세요

54 **K-water 포커스 ①**
물산업 중소·벤처기업과
원 팀을 이루다

56 **K-water 포커스 ②**
지역사회와 함께
물문제 해법을 찾다

58 **News**

60 **방울이와 DIY**





‘다음’이 더 반짝거릴
보현산댐



당신이 '별 여행'을 즐기는 이라면 도저히 참지 못할 곳이 경상북도 영천시다. 영천시는 소문난 별의 도시이자, '별 볼 일 많은' 관광도시다. 산자락 사이에 오목하게 자리해 별빛 도드라지는 보현산댐도 별 보기 좋은 곳 중 하나다. 기존의 잠와이어 시설에 출렁다리와 호반.탐방로까지 갖출 예정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보현산댐. 그곳에서 '조금씩 더 나아진다'는 것의 의미를 만나고 돌아왔다.

글 사진 이시목(여행작가) 출처 한국천문연구원

별의 도시 영천



보현산댐은 지금 '다음'을 만드는 중

언젠가부터 영천은 '별(星)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 중심에 보현산천문대가 있다. 천문대가 자리한 보현산 일대는 예부터 공기가 청정해 별을 관측하기에 최적이었던 곳이다. 덕분에 보현산 일대에서는 망원경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자주, 솔한 별이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준공한 보현산댐에서도 별은 꽤나 또렷하게 보인다. 보현산 푸른 능선들이 주위를 빼곡하게 감싸안은 지점에 자리해 별에 집중하기 좋은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보현산댐은 '국내 최초의 아치형 다목적댐'으로 지어져 아름답다. K-water 보현산댐지사 정문 앞 전망대가 댐 감상 포인트다. 이곳에 서면 노란색 별을 따는 소년 조형물 뒤로 곡선으로 유려하게 휘어진 댐의 형태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호수는 여기서부터 북서쪽으로 동그랗게 휘어지며 물길을 만든다. 출렁다리가 완공될 자리쯤이 호수의 머리이고, 더 위쪽이 습지 식물 일렁대는 인공습지다. 조성 후 서식 조류가 10여 종 더 늘어나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보현산댐의 인공습지는 댐 준공 시 계획했던 한 곳의 습지에 세 곳의 습지가 추가되고, 최근 다시 한 곳이 더 추가돼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게 몸집을 자꾸만 불려나가는 인공습지에 보현산댐에 깃드는 생물 또한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다.

호수 위를 날고 호수 곁에는 쉬는 일

보현산댐은 유용한 자원시설인 동시에 즐기기에 좋은 관광자원이자다. 영천의 명물로 통하는 짚와이어를 포함한 모노레일, 전망대 등이 모두 호수에 바투 붙어 있다. 이 중 짚와이어와 전망대가 호수를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길이 1.4km에 최고 시속 100km를 자랑하는 보현산댐 짚와이어는 산과 호수를 횡단하는 액티비티형 체험시설로, 산에서 호수로 하강하는 속도가 남달라 인기 만점이다. 출발지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짚와이어 체험 후엔 전망대도 찾을 일이다. 보현산댐전망대는 이름 그대로 댐 일대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전망대 3층에 있는 카페에 오르면 아치형 댐과 푸른 보현산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3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6층 높이여서 전망이 꽤 시원하다.

내년 4월쯤엔 호수를 다른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호수 위를 걸어 횡단할 수 있는 출렁다리와 호수의 옆구리를 끼고 걷는 호반 탐방로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현산댐을 찾은 강력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셈이다.



임고서원

영천이 고향인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사액서원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선조 36년(1603년) 현 위치에 중건됐다. 감상 포인트는 서원 앞마당에 있는 단심가 비석과 개성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측해 만든 선죽교, 그리고 조용대다. 정몽주가 낚시를 즐겼다는 조용대는 임고서원의 부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이곳에 서면 임고서원과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노거수가 어울린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47

문의 054-334-8982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지 이야기



자천교회

우리나라 한옥 교회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곳이다. 1903년에 세워진 교회로, 외관은 한국 목조건축 양식이고, 내부 공간은 바실리카식 교회 양식이다. 예배당을 칸막이로 나눠 남녀 자리를 구분한 점도 이채롭다. 예배당 온돌방 옆에 있는 굴뚝도 의미 깊은 볼거리다. 밥 짓는 연기에 마음 아플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해 나지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교회 지척에 있는 오래된 숲 오리장림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3리 773

문의 054-337-2775



별도 보고 숲도 걷고 전망도 즐긴다

보현산땀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보현산은 보현산천문대뿐 아니라 '보현산 하늘길'로도 각광받는 곳이다. 정각별빛마을에서 보현산천문대로 이어지는 길에 하늘길의 제1, 제2 탐방로인 구들장길과 천수누림길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아이들과 함께 숲을 거닐기에 좋은 곳은 천수누림길이다. 천문대 입구에서 보현산 정상인 시루봉(1,124m)까지 1km가량 나무데크로 연결돼 있는데 마타리며 구릿대, 산꼬리풀 등 들꽃들이 데크 주위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숲길이 끝나는 지점인 시루봉 정상도 눈부시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기도 한 이곳에 서면 팔공산, 오봉산 등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푸른 보현산땀이 발아래에서 빛난다. 두 발로 딛는 산능선과 까마득한 산 아래 풍경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몽환적이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보현산 아래 정각별빛마을에 있는 천문과 학관에 들러 별과 태양의 흑점을 관측해 봐도 좋다.

별별미술마을

별별미술마을은 시안미술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문화예술마을이다.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마을의 버스정류장이며 폐가·화장실 등 '별의 별것'들을 인상적인 오브제로 한 미술관이 만들어졌다. 가상리, 귀호리, 화산리 3개 마을의 골목골목 숨어 있는 예술작품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래실로 364

문의 054-330-6067





찾아가GO, 체험하GO

문화와 자연이 함께 하는 영천 여행 스폿

영천시 화북면 일대에 조성한 보현산댐은 높이 58.5m, 길이 250m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국내 최초로 곡선형(아치형) 디자인을 적용해 아름다운 곳으로, 전력생산 시설과 다양한 수질개선 시설을 갖췄다. 짚와이어 등 댐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에코스텝 1



보현산댐



화남면

화산면



가래실문화마을



동의참누리원 영선한의마을

화북면 보현산댐 짚와이어

목재 문화 체험관

보현산댐

에코스텝 2



보현산댐공원



보현산 천문 과학관



자양면

보현산댐 하류에 있는 친수공간으로, 산책하기에도 좋고 쉬기에도 좋다. 넓은 잔디광장 주위로 동물 모양 카라반 등을 갖춘 캠핑장이 있고 걷기 좋은 산책로도 있다. 군데군데 보이는 조형물도 예쁘다.



임고면

운주산 승마 자연휴양림

운주산 승마 조련센터

임고서원



고경면





제로상점



푸른 지구를 위해 '지금' 함께 해요



제로웨이스트 상점 경주 <숲을>

오래 가만히 되뇌게 되는 이름들이 있다. <숲을>도 그렇다. '수풀, 수풀' 하고 부르면 동그스름해졌다가 약하게 탁 떨어지는 입술 모양이, 마치 숲에서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 같아 몇 번이고 입술을 오므렸다 펴게 된다. 그 숲 냄새 풀풀 나는 이름이 좋아 <숲을>을 찾았다. 경주시 유일의 제로웨이스트 가게인 <숲을>은 기후위기에 놓인 지구환경에 꼭 필요한 제로웨이스트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대체품이 없으면 만들어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지퍼백과 비닐봉지 대신 천주머니를,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두루마리 휴지 대신 수건을.’

키워드로 공간을 읽어낼 때가 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할수록 키워드는 선명하다. <숲을>에서 찾은 키워드는 두 가지, ‘대신’과 ‘함께’다. ‘대신’은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것들을 지구에 무해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물품들로 바꿔 쓰자는 의미이고, ‘함께’는 공공재인 지구를 지키는 데는 ‘많은 이의 조금씩의 노력’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권은선 <숲을> 대표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함께 하는 것’이라며 “그 실천 중 하나가 지구환경에 유해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의 대체재를 찾아

쓰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점 안에 ‘대신’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쓰인 건 이 때문일 것”이라며 “잘 찾아보면 되살림이나 용기 같은 단어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권 대표가 제안하는 많은 대체재 중 <숲을>을 대표하는 대체재는 ‘알맹 장바구니’다. 천주머니나 장바구니라는 말 대신 굳이 ‘알맹 장바구니’라고 부르는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권 대표는 “양파나 과일, 쌈채 등을 담은 비닐팩의 대체재가 바로 알맹 장바구니”라며 “자투리 천이나 재활용 천을 활용해 만들어 자원순환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찮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 누구나도 대안생활이 가능하다”라며 “생활필수품 중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의 대체재를 찾아 쓰거나 비닐 대신 용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우유팩을 수거하는 등의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함께’, ‘조금씩’ 바뀌가는 일상을 꿈꿨다

외형적으로 <숲을>은 딱 제로웨이스트 숍이다. 우리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때 필요한 물품과 세제 등이 가득하다. 이 가운데 세제는 손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오면 담아주는 리필스테이션(세탁세제 2~3 종류와 베이킹소다, 구연산, 설탕 원당 등)으로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포장은 하지 않는 무포장 가게로 운영된다. 우유팩과 멸균팩, 플라스틱 뚜껑, 정수기 필터 등을 수거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환경 교육 서비스와 환경 캠페인 등 사회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중 환경 캠페인은 <숲을>이 주축이 돼 구성된 경주 환경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이나 ‘담배꽂초 수거’ 캠페인 등을 한다.

<숲을>의 특별함은 이 모임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롯한다. 삶의 방향과 결이 비슷한 사람과의 어울림은 늘 큰 시너지를 낸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각자의 방식과 여건에 맞춰 지구와 사람에게 이로운 대안들을 적용한다. <숲을>이 지향하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살필 수 있다. 권 대표는 “제로웨이스트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좀 더 쉬워지고 그 효과도 큰 것 같다”라며 “이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제가 노력하는 제로웨이스터인 것처럼
노력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과 사람이고 싶어요."**

<숲을> 권은선 대표



<숲을>을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곳을 소개할 때 쓰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푸른 지구를 위해 지금 함께 하자 말하는 가게'인데요. 말하자면, 저도 이 슬로건을 계기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곳은 '수풀 림(林)자'를 이름으로 쓰는 이림 선생님이 3년 반 정도 전에 오픈한 곳인데요. 그때 경주 로컬마켓인 달팽이시장에서 선생님을 만났고, 운영 취지에 공감해 조금씩 도와드리다가, 올 초 건강한 빵을 만드는 <느림보상점>과 함께 <숲을>의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참고로 달팽이시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경주의 작은 장터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숍이 처음인 분들에게 권할 만한 제품이 있다면요?

고체치약이랑 나무 칫솔을 가장 먼저 써보시라고 권해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대체재라서 구하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괜찮거든요. 그다음으로는 스테인리스 빨대와 밀랍 랩을 추천합니다. 이들은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품이면서 플라스틱과 비닐의 대체재이기도 해 일석이조죠. 특히 6개월간 재사용이 가능한 밀랍 랩은 생각보다 유용해서 꼭 한 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담배꽂초 수거 같은 환경 캠페인들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 텐데요.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내 아이를 비롯한 미래 세대가 살 공간이 지속 가능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면 '지금의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처음엔 '내 아이에게'란 생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 이 모든 게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살아야 할 세상,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로운 건 없지만 향후 몇 년 안은 분명히 다를 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안 생활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결국은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 하는 일인 것이죠.

요즘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주 환경 모임을 보다 활성화해 플로깅, 환경캠페인 같은 '함께'하는 활동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숲을>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알려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생활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를테면 '일회용 랩을 안 써도 되는 거였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같은 소소한 깨달음들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덜 소비하고, 친환경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이 계실 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숲을)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소금강로8번길 11-2, 2층
문의 0507-1305-9134



이제 와인도 'K-와인' 시대다. '한국의 보르도'라고 불리는 영천에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와인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명품 와인이 생산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영천시, 영천와인

한국의 보르도 영천와인





66

영천에는 국내에서도 내로라하는
 와이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은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수상하는 것은 물론
 와인 애호가들의 인정을 받으며,
 세계에 K-와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99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 산지

와인은 잘 익은 포도의 즙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영어로는 와인(Wine), 프랑스어로는 Vin(뱅), 이탈리아어로는 Vino(비노), 독일어로 Wein(바인)이라고 한다. 사과, 복숭아, 라즈베리 등 다른 과실을 발효해 만든 와인은 그 과실의 이름을 붙인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지역이 경상북도 영천시다. 국내 와인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전국 최대 와인 생산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영천와인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경상북도 경산시에 국산 와인의 대표격인 '마주양' 공장이 설립되면서 영천지역에서 양조용 포도가 일부 계약 재배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농가 단위의 가양주 형태로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했으며, 한 주민이 1978년 장독에 와인을 양조해 뒷뜰에 묻어두었다가 잊어버리고 2007년에 발견해 영천시에 기증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후 2000년대에 캠벨얼리 포도로 양조한 '로얄캠벨'이라는 브랜드로 시판용 와인이 출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로제와인, 아이스와인을 출시하며 국내 최고의 와인 산지로 발돋움했다.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인정한 K-와인

태백산맥 남쪽에 위치한 영천은 보현산, 팔공산, 운주산 등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분지를 이루는 이곳은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해 포도와 복숭아 등 당도 높은 과일 생산지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포도 주산지인 포도는 영천의 과일 중 첫손에 꼽히는 작물이다.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캠벨얼리, 머루포도, 거봉 등인데, 포도의 대표 품종인 캠벨얼리는 주로 여름철에 생산된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맛볼 수 있는 머루포도는 와인으로 양조했을 때 품질이 우수하다.

당도 높은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은 덕분에 영천에서는 2007년부터 와이너리(Winery)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뜻하는데, 영천에는 국내에서도 내로라하는 와이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은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수상하는 것은 물론 와인 애호가들의 인정을 받으며, 세계에 K-와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TRASH BUSTERS

환경을 위한 움직임도
축제처럼 즐기자

최안나 트래쉬버스터즈 CBO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일회용컵은 늘 뜨거운 화두다.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대안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내는 '트래쉬버스터즈'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글_강시내 사진_김범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쉬버스터즈는 그저 일상적으로 쓰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대단한 용기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품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이라도 덜 버리고 더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지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어요.



일회용품 쓰레기가 배출되기 전에 잡아두는 사람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은 더욱 늘어 지난해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10억 개를 넘어섰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방법은 딱 한가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 '트래쉬버스터즈'가 찾은 방법은 '재사용'이다. 시선을 사로잡는 주황색 컵과 브랜드 로고 그리고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낯선 이름.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다.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수거해 세척 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트래쉬버스터즈라는 이름과 브랜드 콘셉트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 방영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고스트버스터즈>가 뉴욕시에 출몰하는 유령을 잡아들이는 유령 퇴치 전문 회사라면 트래쉬버스터즈는 다회용기를 제공함으로써 일회용품 쓰레기 출몰을 줄인달까? 공동창업자이자 트래쉬버스터즈의 브랜드 마케팅을 책임지는 최안나 CBO는 무엇보다 그 일들을 언제나 유쾌하고 재미있게 처리해나가는 주인 공들의 바이브를 가져오고 싶었다고 한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기후, 동식물 생태계 등의 문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 종사자라거나 평소 환경 문제에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 이유를 '진지함'에서 찾았어요.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환경 관련 이야기를 다들 너무 어렵게만 풀어내고 대안도, 접근 방식도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쉬버스터즈는 그저 일상적으로 쓰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대단한 용기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번 쓰고 버린 일회용품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이라도 덜 버리고 더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지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어요. 그렇게 트래쉬버스터즈의 슬로건 “It's not a big deal”이 탄생한 거죠.”

지금, 지구의 중심에 있는 플라스틱

트래쉬버스터즈가 사업을 고민한 건 지난 2019년 무렵이었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객재원 대표는 당시 축제 감독으로 일했는데, 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보며 허를 내뿜었다고 한다. 최안나 CBO를 비롯해 객재원 대표와 뜻을 함께한 동료들은 이 경험으로 사업 아이템을 기획해 서울시 청년투자사업 공모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었다. 자연스럽게 축제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의 창업과 함께 코로나19가 찾아왔다는 점이다. “납품이 예정돼 있던 많은 축제와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됐어요. 사업 지원금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겨우 버티며 다른 길을 찾았죠. 단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염두에 뒀던 영화관, 장례식장, 경기장 등 다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비스를 알렸어요.”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의 탕비실부터 CGV, 메가박스 같은 대형 영화관의 일부 지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트래쉬버스터즈도 다양한 수요에 따라 제품군을 개발했다. 다회용컵은 11oz, 14oz, 16oz, 20oz로 세분화되어 있고, 현장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가 보편적인 축제용 다회용기는 스푼, 포크, 보울, 플레이트, 14oz 컵까지 구성했다. 창업 후 약 2년, 5명이었던 직원은 50명이 됐고, 정기적으로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는 140개 사로 늘었다.

재사용의 즐거움과 이로움을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겠다. 그런데 그 다회용기 정말 괜찮은 걸까? 이제 소비자들은 다회용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트래쉬버스터즈가 제공하는 다회용기는 총 여섯 가지 과정을 거쳐 출고된다. 우선 초음파세척 후 음식물과 잔여물을 불리고 애벌

세척한다. 이어 고온·고압수 세척 단계를 거치면 열풍 건조한 뒤에 UV-C 살균 소독까지 거치는 과정이다. 물론 그 뒤에도 잘 세척됐는지 정밀 검수를 해야 비로소 진공 포장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트래쉬버스터즈에 따르면 이리써 바이러스는 99%까지 박멸된다. 일반 일회용품에 남아 있는 미생물과 비교해도 소독을 거친 다회용기의 잔여 미생물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최안나 CBO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한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사용, 재활용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회용품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썼던 것을 다시 쓰는 것이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재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예전에 중국음식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있었던 감각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쓰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요.”

트래쉬버스터즈는 매월 버스팅스코어를 공유한다. 이 수치는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버려지지 않은 일회용품의 수다. 지난 2019년 9월 창립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의 누적 버스팅스코어는 7,901,806. 이 수치가 ‘지난해 일회용컵 사용량 10억 개’라는 수치를 대신할 만큼 커진다면 지구는 조금 더 깨끗해져 있지 않을까.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트래쉬버스터즈

문의 02-6010-1164

홈페이지 <http://trashbusters.kr>



기후변화와 몬순... 때론 감사하고, 때론 무서운 비

‘역대급 집중호우’, ‘역대급 태풍’ 해마다 깨지는 기록들.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악화를 거듭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시대,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글. 박상욱 JTBC 환경분야 심층취재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 곡물은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공통점은 비단 ‘밥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몬순 또한 공통점입니다. 봄철 모내기를 하고 나면, 벼는 여름 동안 강한 햇빛과 충분한 수분(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논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우리가 이런 패턴에 따라 벼를 키우고, 쌀을 주식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몬순이 있습니다. 여름철 햇빛과 비가 집중된 덕분에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논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었고, 그 기후에 적응해 우리의 주식은 쌀, 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익히 알 듯이 비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적당히 온다면 풍년을 부르는 ‘감사한 비’지만, 갑작스레 엄청난 양이 퍼붓는다면 재산 피해를 넘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비’가 되니까요. 모두에게 이로운 ‘수자원’이냐, 모두를 위협하는 ‘수재해’냐를 가르는 것은 한끗 차이입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무서운 비’에 해당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고 있는 국민

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결코 잊힐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쏟아졌죠. 수도권에서만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피해액만 3,1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 2만 7,262세대, 차량 1만여 대가 침수됐고, 공공시설 1만 6,842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비를 두고, 사람들은 ‘115년 만의 최악 폭우’라고 불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시간당 141.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시간당 강수량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100년 만의’, ‘역대급’ 등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의 표현과 함께 곳곳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에 대비할 때, 우리는 주로 ‘빈도’를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거의 통계에 기반해 앞으로의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비, 특히 기후와 관련한 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같은 기준은 더 이상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적절한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오늘날의 기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보다 더 달라질 미래의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폭우',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태풍'에 대비한다 한들, 이는 과거 기준에서 '200년에 한 번'에 불과합니다. 계속된 기후변화로 그 빈도는 '200년에 한 번'에서 '100년에 한 번'으로, '100년에 한 번'에서 '50년의 한 번'으로 바뀔 테니까요. 또한 이는 그 기간 동안의 안전을 담보하지도 못합니다. '100년에 한 번'이 향후 99년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98년간 안전히 지내다 99년 364일째에 극한현상을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 극한현상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후변화 속 기후재난에 발맞춰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선 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일수는 줄어들지만, 하루 또는 한 시간에 퍼붓는 비의 양은 늘어나면서 가뭄과 홍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온뿐 아니라 바닷물 역시 뜨거워짐에 따라 전체 태풍의 수는 줄더라도 태풍의 강도는 세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청정 에너지 강국,

독일

유럽 중부에 위치한 독일은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해 온 독일의 저력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강국인 독일은 2035년까지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글_임산하 출처_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앙일보

GERMANY



2



1

1. 독일에 설치된 태양광
2. 산업 기반 시설이 있는 겔젠키르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재생에너지는 독일 전력 생산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그동안 독일은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과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법(EEG)을 시행한 독일은 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태양광 비율을 높여왔다. 또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건물 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했다. 2011년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 Energy Change Policy)을 발표하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존 전력 공급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독일 전력 소비 내 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독일 연방 에너지·경제연합(BDEW)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에너지 소비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이며,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에 달한다.

지난 4월, 독일 정부는 주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독일은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매년 22GW 규모 확대 및 총 215GW 규모 태양광 발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태양광 발전 시장도 커지고 있다. 2020년 4.8GW 용량을 추가하며, 유럽 태양광 발전 시장 2위 네덜란드에 비해 74% 더 성장하며, 독보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태양광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 겔젠키르헨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은 도시재생을 통해 재생에너지 R & D 도시로 거듭난 지역이다.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 석탄과 철광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불의 도시’로 불렸던 이곳은 1960년대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겔젠키르헨 시와 주민들은 머리를 맞댔다. 이 과정에서 “공원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금 겔젠키르헨 시에서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태양광 발전으로 조달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 주민들은 ‘태양광 전 도시’로 변신했다. 자발적으로 태양광협회를 출범했으며, 시장부와 협력해 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실험장을 만들었다. 일례로

브람캄스트라체 마을에는 해를 따라 태양광 패널 각도가 자동 조절되는 시설이 설치돼 있다.

또 재건축을 통해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샬프리트 마을은 유럽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마을로 꼽힌다.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부수입을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겔젠키르헨에는 브람캄스트라체 마을과 샬프리트 마을 같은 마을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겔젠키르헨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태양광 발전 도시,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인구가 약 20만 명 남짓한 도시다. 전 지역의 40% 이상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설립 시 훼손된 만큼의 자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재현해야 할 정도로 독일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다.

지난 1992년에 '독일 환경 수도'로 지정됐고, 2010년에는 '에너지 보호 수도'로, 2012년에는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로, 2018년

에는 '에너지절약 수도'로 선정된 이곳은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최소화를 실천하고 있다.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에너지에 주목했다. 관공서와 도서관, 주차장, 축구장 등 공공시설은 물론 일반 주택과 상점들까지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2018년 문을 연 프라이부르크 신 시청사 건물은 외벽 전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최신 태양광 모듈을 달았다.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제로 건물'로 도시의 명소로 꼽힌다.

프라이부르크 중심가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보봉마을도 친환경 지역으로 유명하다. 마을주민들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지킨다. 보봉마을 건물들은 대부분 패시브하우스다. 단열 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집이다. 프라이부르크 신 시청사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체 생산한 전기를 팔아 소득을 올리는 '액티브 하우스'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태양광은 미래에 달성해야 할 기술이 아니라, 지금 나와 내 가족이 매일 접하고 사용하는 친숙한 에너지로 자리매김하며 독일을 태양광 발전 강국 1위로 만들었다.

3. 프라이부르크의 그린 시티(Green City)에 설치된 태양광 지붕



이게 정말 양말이었다고? 소품이 된 양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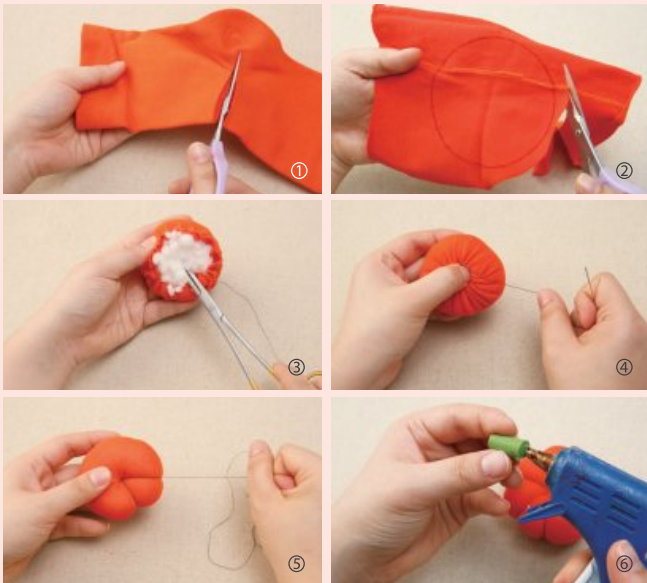
소품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양말

우리가 신는 그 양말로 소품을 만든다고? 귀여운 패턴과 다양한 색상, 보들보들한 촉감의 신축성 있는 소재가 소품을 만들기에 제격이다. 양말인형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 씨는 “양말은 누구나 사용하는 물건인 동시에 쉽게 버려지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양말은 신축성이 좋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양말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아요”라고 말한다. 이런 양말을 활용하면 귀여운 인형은 물론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 친환경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려진 양말을 찾아보자.



할러윈 호박 쿠션 만들기

- ① 발꿈치를 기준으로 양말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 ② 양말 안쪽 면에 도안을 그린 뒤, 바느질선에서 시접 1cm 남기고 재단해 주세요.
- ③ 바느질선을 따라스티치한 뒤, 실을 살짝 당겨 입구를 오므리고 솜을 넣어주세요.
- ④ 실을 잡아당긴 뒤 시접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 ⑤ 중앙에 점을 찍고, 아래위로 관통한 뒤 실을 당겨 감침질해 주세요.
- ⑥ 호박 꼭지는 글루를 바른 뒤 중앙에 붙여주세요.



짜없는 양말, 금세 작아진 아이의 양말, 신기에 불편한 양말이 있다면 모아보자. 우리가 자주 신는 양말을 가지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은 정성 또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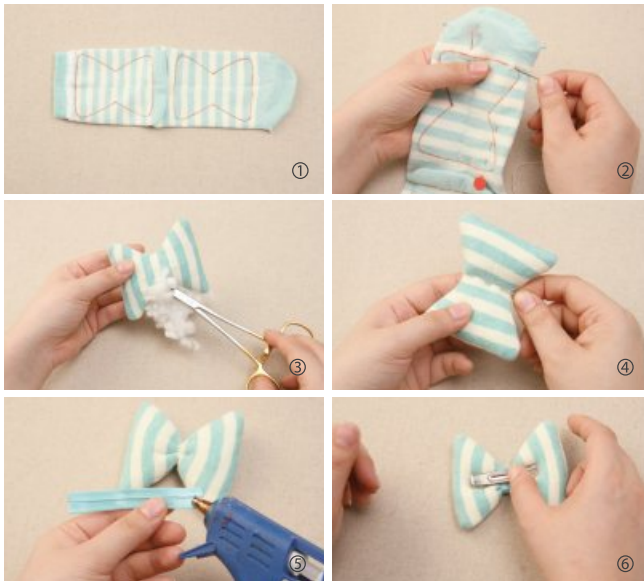
글_이종철 출처_<모모컨츄리 양말인형>, 김국준, 정은혜



정성 가득한 핸드메이드 작품

‘양말로 만들면 촌스럽고 투박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은혜 작가는 양말로 소품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양말을 잘라 꿰매고 솜을 넣은 후 마무리하는 만드는 방법으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핼러윈 호박 쿠션의 경우 오렌지색 양말이 없다면 무늬가 없는 양말을 잘라 사용해도 된다. 반면 리본머리핀은 줄무늬 같은 패턴이 들어가 있는 양말을 사용하면 좋다. 완성된 소품을 보면 양말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다.

리본머리핀 만들기



- ① 양말을 뒤집은 뒤, 도안을 그려주세요.
- ② 도안을 따라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을 바느질해 주세요.
- ③ 창구멍을 통해 뒤집은 다음 솜을 넣어주세요.
- ④ 창구멍을 감칠질로 막은 뒤, 중간 부분에 넓은 간격으로 훔칠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 ⑤ 리본 테이프 끝에 글루를 바른 뒤, 리본의 중앙에 고정해 주세요.
- ⑥ 핀대 정면에 글루를 바른 뒤 리본 중앙에 대고 붙여주세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이면 유독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탓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왜 가을철에는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까? 가을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일상 속 관리법을 알아보자.

글. 이종철

왜 머리카락은 가을철에 더 잘 빠질까?



가을철 탈모의 원인이 궁금해

탈모증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질환이다. 사람마다 머리숱이 다르고, 얼마나 빠지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머리카락이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증을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모는 상처가 동반되는 반흔성 탈모와 모발만 빠지는 비반흔성 탈모로 나눌 수 있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유전성 탈모, 원형 탈모, 계절성 탈모, 휴지기 탈모 등으로 질환을 구분할 수도 있다.

가을철에 나타나는 계절성 탈모는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 등으로 약해진 두피와 모근이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건조해지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비듬, 각질, 가려움증 등이 더해져 탈모가 악화되기도 하고, 가을철에는 일시적으로 남성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탈모가 심해지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탈모

탈모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에 발표한 2020년 탈모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진료 인원은 23만 3,000명으로 남성은 13만 3,000명, 여성은 10만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2.2%로 가장 많았고, 40대 21.5%, 20대 20.7% 순이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를 제외하고 탈모가 진행되는 초기의 경우, 대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된다. 하지만 생활 관리에 소홀하거나 탈모증을 방치하면 급성 탈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탈모의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탈모는 금방 회복할 수 있으나, 탈모증을 방치했다가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만성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소 모발 관리는 이렇게 하자


가을철 탈모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을철에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려면 자외선이 강할 때는 모자와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고, 낮 동안 쌓인 두피의 노폐물을 매일 밤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머리를 감을 때는 자신의 두피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지성 두피에는 세정력이 높고 컨디셔너 성분이 적은 샴푸가, 건성 두피와 손상된 모발에는 세정력이 낮고 컨디셔너 성분이 많은 제품이 도움이 된다.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 대신 찬바람으로 두피 안쪽까지 잘 말리도록 한다.

머리를 감은 뒤 손가락으로 정수리 부분이나 머리 옆과 뒷부분을 톡톡 두드려주거나 꼭꼭 눌러주는 등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또 빗으로 머리 전체를 살살 두드리거나 머리카락을 빗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머리를 묶을 때는 고무줄로 묶기보다는 핀이나 헤어밴드로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다.

가능하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환경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에 검은콩, 두부, 해조류 등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 시 모자, 양산 쓰기	 자신의 두피에 맞는 샴푸 사용하기	 두피 안쪽까지 잘 말리기	 두피 마사지하기
--	--	--	--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에 특별한 커피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세 번째 주인공이 된 이들은 시원한 음료를 싣고 온 커피차를 환한 미소로 반겼다.

글. 최행좌 사진. 김현희 영상. 김지혜

시원한 음료를 실은 커피차가 청송에 떴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햇별이 곳곳에 내려앉은 따뜻한 가을날, K-water 청송상하수도 센터에 커피차가 나타났다. 응원 문구가 붙은 '수(水)타벅스가 간다' 커피차가 주차장 한편에 자리를 잡자 직원들이 호기심과 놀라움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오늘 이벤트에 사연을 보내 온 주인공은 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 김성일 과장이었다.

“사보를 통해 커피차 이벤트를 알게 됐어요. 청송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수(水)타벅스가 간다'가 오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됐어요. 며칠 후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정말 기쁘더라고요.”

김성일 과장은 행사 장소를 '청송상하수도센터'로 선택했다.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청송권지사는 사업소가 분산·이격 돼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청송상하수도센터에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고, 무엇보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전체 물순환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청송권지사

9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는 댐과 지방상수도, 하수도사업 등 전체 물순환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K-water의 유일한 현장 부서다. 올해 청송권지사는 성덕댐 건설







사업 준공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댐이 완공되면 지역민에게 더 많은 물복지를 실현하고, 가뭄 등 기후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하수시설 개선과 신규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건설사업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과 설비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는다.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청송권지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로 굳게 다져진 팀워크를 자랑한다. 동료들을 위해 본인 업무 외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술선수범해 수행하는가 하면 적재적소에 인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직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협업 덕분이다. 김보황 관리부장은 “청송권지사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전체

물순환체계를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올해는 성덕댐 건설사업 준공, 하수도 확장사업 준공 예정, 유수율 제고를 위해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청송권지사는 사업장이 흩어져 있어 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 이 이벤트를 통해 잠깐이나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점심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

점심 식사를 마친 직원들의 기다림 속에 드디어 오늘의 이벤트가 시작됐다. 커피차에는 10가지가 넘는 음료수가 적힌 메뉴판이 걸렸다. 텀블러와 머그잔을 준비해 온 직원들이 순식간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메뉴가 다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커피차 앞에 직원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용현 사원은 “좋은 날씨에 맛있는 커피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마실 수 있어 좋아요”, 이은영 대리는 “맛있는 커피를 선물해 주셔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옥경훈 대리는 “이벤트를 신청해 주신 김성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청송지역에 수(水)타벅스가 찾아와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박지은 사원은 “직원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음료를 받은 직원들은 커피잔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거나,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등 저마다 이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날 하루만큼은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협업하고 있는 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는 웃음꽃으로 물들고 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message.

커피차가 온다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김성일 과장

낙동강유역본부 청송권지사

청송권지사는 사업소가 분산·이격 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전 직원이 모여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요.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없는지 고민하던 차에 TV 등에서 보던 커피차 이벤트가 있어 사보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K-water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합니다

K-water는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비대면·온택트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경영 확산에는 문화·환경과 결합한 활동으로 K-water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비대면·온택트로 펼치는 사회공헌활동

K-water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온택트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과 빅워크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실시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3회에 걸쳐 4만 5,000명의 네티즌이 동참해 기부금액 1.2억 원을 모금했으며, K-water의 더블기부 캠페인 참여로 총 2.4억 원을 기부했다. 또 빅워크 앱에 '함께 걸어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통해 국민 3만 4,000명이 총 13억 걸음(목표 대비 1,300%)을 달성했다.



3회

4만 5,000명 동참

1.2억 원 모금

2.4억 원 K-water 더블기부

52,000명 참여

13,000,000 원 기부

122억 보 달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

K-water는 지난 5월 4일 대청호 오백리길에서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한 플로깅 행사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기부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 챌린지는 대청호 디지털 스탬프 인증장소 중 1곳을 방문해 플로깅 활동을 수행하는 플로깅 챌린지와 대전지역 미래세대에 1,300만 원을 기부하는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 두 가지 미션으로 운영됐다.



K-water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댐주변지역 농가를 위해 'K-water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테마로 2주간 17개 지역에서 직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전개



14일

17개 지역

600명 참여



국민 소통

소통은 사전적으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의미로, K-water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NATIONAL COMMUNICATION



K-water는 선한 영향력으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요즘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작은 선행들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능력이다. K-water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K-water가 국민과 소통하는 힘의 원천인 선한 영향력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글_최행좌 출처_K-water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다

K-water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K-water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사적인 지원으로 힘을 보탤다. 지난해 K-water는 직접 생산한 무라벨, 경량화된 친환경 병입수돗물 140만 병을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 지원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는 매달 병물 1만 병과 수거된 병물 페트병으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인 무릎담요, 에코백도 전달했다.

비대면·온택트의 흐름에 따라 봉사 방식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빅워크’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피빈을 통해 3회에 걸쳐 4만 5,000명의



1. 국군의무사령부 친환경 위문품 전달

네티즌이 동참해 기부금액 1.2억 원을 모금했으며, K-water의 더블기부 캠페인 참여로 총 2.4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빅워크 앱에 ‘함께 걸어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개설해 국민 3만 4,000명이 총 13억 걸음을 달성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2,000명의 결식아동·청소년을 위한 2,000만 원 규모의 영양도시락을 제공했으며, ‘1004가 전달하는 든든한 도시락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지원했다. 해마다



K-water는 국민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추석맞이 나눔 활동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K-water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다

K-water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K-water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댜주변지역 농가를 위해 ‘K-water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2주간 17개 지역에서 직원 600여 명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5월, 영농철 일손

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전라남도 곡성군의 카네이션 농가,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과 농가, 전라북도 무주군의 인삼과 사과 농가를 방문해 꽃 수거 등의 작업을 지원했다. 댜주변 지역 농가 돕기 활동은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등으로 지역 맞춤형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K-water는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지역상생형 ESG 경영실천 프로젝트로 ‘물벗나눔장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댜주변지역에서 재배한 사과, 딸기, 홍삼, 복숭아, 배 등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억 2,000만 원가량의 제품을 판매해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이 직접 구매 후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기부 행사도 진행해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K-water의 따뜻한 손길은 자연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이 동식 세탁 차량인 ‘K-water 사랑샐터’는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이재민과 소방관들의 의류·이불 세탁을 지원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지난 9월에는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이재민을 위한 빨래 봉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식수용 병물 약 7만 병을 지원하고, 임직원 성금 1억 원을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K-water는

- 2. 1004 든든한끼 도시락 전달 행사
- 3. 대청호 합동 플로깅 행사
- 4. 동해시 산불 피해 지역 성금 전달



2



3



4



5. 가정의 달 맞이 농촌 봉사(전라북도 무주군)
6. K-water 사랑샘터(경상북도 포항시)



농촌 봉사활동 외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G 경영의 확산으로 소통 채널을 넓히다

ESG 경영의 확산으로 K-water가 국민과 소통하는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K-water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환경과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한화이글스와 홀트아동복지회와 협업해 'K-water와 함께하는 Family day'를 통해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100명의 한화이글스 홈경기 야구 관람을 후원

했다. 또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대전 미래지기 아동센터, 제주도관광공사 등과 함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제주도 가족여행 행사도 진행했다.

K-water는 탄소중립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했다. 지난 5월 4일 대청호 오백리길에서 대전관광공사와 함께한 플로깅 행사를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플로깅 기부 챌린지'도 진행했다.

이 챌린지는 대청호 오백리길에 있는 디지털 스탬프 인증장소 중 1곳을 방문해 플로깅 활동을 수행하고 사진 인증하는 플로깅

챌린지와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해 걸음 기부 목표를 달성하면 K-water가 대전지역 미래세대에게 1,300만 원을 기부하는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 두 가지 미션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5만 2,000여 명이 122억 걸음을 달성했고, 기부금 1,300만 원은 대전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의 폭염극복 키트 지원에 쓰였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water가 슬기롭게 국민과 소통하는 법

K-water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은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업역과 문화·환경을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글. 최행좌 일러스트. 하고고 출처. K-water

물사랑 나눔단

지난 2004년 7월에 창단한 K-water 임직원 사회공헌 동아리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9억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벗나눔장터



물벗나눔장터는 K-water가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추진 중인 지역상생형 ESG 경영실천 프로젝트로,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K-water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각지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일부는 직접 구매 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연중 프로젝트다.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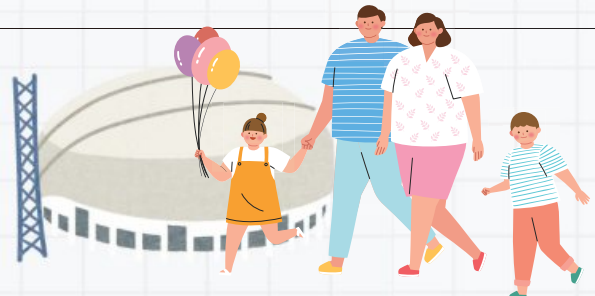
걸음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나눔에 참여하는 것을 취지로, 참가자들의 걸음 수가 10억 보에 이르면 K-water가 미래세대를 위해 1,300만 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 챌린지에 총 5만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억 보를 훨씬 웃도는 122억 보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농촌 일손돕기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댐주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을 돕는 활동으로, 지난 5월 9일 전라남도 곡성군의 카네이션 농가, 5월 10일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과 농가를 시작으로 전 직원이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5월 17일에는 박재현 K-water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전라북도 무주군 인삼과 사과 농가를 방문해 꽃 슈기 등의 작업을 지원했으며, 댐주변지역 농가 돕기 활동은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K-water와 함께하는 Family day



한화이글스, 홀트아동복지회와 협업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난 5월 K-water는 대전지역에서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100명과 함께 한화이글스 홈경기 야구를 관람을 후원하며 취약계층에게 문화 갈증을 달래주는 새로운 지원 활동을 펼쳤다.



알록달록한 실로 만든 터프팅 작품은 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직접 도안을 그려 취향과 용도에 따라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 총처럼 생긴 터프팅건을 쓸 때 “탕탕” 하는 경쾌한 소리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제격이다.물관리기획처 직원 5명이 복슬복슬한 매력의 터프팅 매트 만들기 도전에 나섰다.

글. 최행좌 사진. 김범기

노력으로 완성한 단 하나뿐인 매트

물관리기획처 직원 5명의 터프팅 매트 만들기



새로운 취미 도전에 나선 이들

터프팅(Tufting)은 ‘잔디가 촘촘하게 모인 다발’을 뜻하는 ‘tuft’에서 따온 말로, 천 위에 여러 가닥의 실을 심는 직조 기법이다. 터프팅 매트 만들기를 위해 물관리기획처 임지선 과장, 김경민 사원, 김수연 사원, 하상화 사원, 하민지 사원이 사연을 신청했다. “터프팅 매트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돼요”라는 김경민 사원, “코로나19로 부서 직원끼리 같이 문화생활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귀한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뻐요”라는 하상화 사원, “새로운 공간에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설레고 기대돼요”라는 김수연 사원, “SNS에서 보고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좋아요. 제 손재주를 믿어봅시다”라는 임지선 과장,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보고 싶었던 체험이라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궁금해요”라는 하민지 사원. 이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 얼굴이었다. 황규민 강사는 “터프팅은 바탕이 될 천을 프레임에 끼워 준비한 다음 원하는 크기의 도안을 스케치하고, 터프팅에 쓸 실 색상을 골라요. 터프팅건에 실을 끼워 뒤에서 앞으로 총을 쏘면서 면을

메워나가면 돼요. 터프팅건을 쓸 때 천에 딱 붙여서 일정한 속도로 쏘는 게 중요해요”라고 설명했다.

“탕탕탕탕” 총 쏘아 만드는 터프팅의 매력

이들은 먼저 도안을 그리기 위해 펜을 잡았다. 하상화 사원은 ‘방울이’, 김경민 사원은 스마일 이미지로, 김수연 사원은 햄버거로, 임지선 과장은 예쁜 꽃으로, 하민지 사원은 모던한 스타일의 이미지로 제각각 준비해 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도안 작업이 끝나면 터프팅건이 나설 차례다. 본격적으로 터프팅건과 벌이는 사투의 시간이 벌어졌다.

“탕탕탕탕” 소리를 내며 터프팅건으로 연습을 하던 김경민 사원이 “꽃을 좀 줄일까 봐요”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김수연 사원은 “상추는 어떤 실이 어울릴까요?”라며 도움을 청하자 하상화 사원은 “연두색 실이요”, 임지선 과장은 “초록색 실이요”라며 도움을 줬다. 결국 두 개의 실을 사용해 싱싱한 상추를 표현했다. 임지선 과장은 꽃에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훌륭한

하민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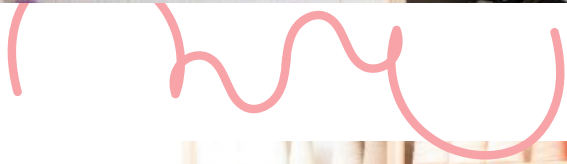
김수연 사원

김경민 사원

임지선 과장

하상화 사원





미적 감각을 드러냈다. “과장님 색깔이 너무 예뻐요”라며 하민지 사원이 엄지를 세웠다.

김경민 사원이 “원 모양인데 안 동그래요”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황규민 강사가 “앞에서 보면 동그래요”라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건넸다.

손재주가 부족하다며 몬드리안 같은 모던한 이미지를 만들었던 하민지 사원이 제일 먼저 작품을 완성해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어 김경민 사원, 하상화 사원, 김수연 사원이 작품을 완성했다. 마지막까지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 임지선 과장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라며 모두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면을 다 메운 터프팅은 액체로 된 라텍스를 칠해 실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또 마감용 천을 덧대 완성하는데 2~3일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무리는 황규민 강사가 맡기로 했다.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는 과정

터프팅은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노력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일 터. 힘을 쏟고, 마음을 담고, 추억을 새기다 보니 어느새 3시간이 훌쩍 지났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하니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을까.

초보자라서 쉬운 이미지를 선택했던 하민지 사원은 “생각보다 터프팅건이 무겁더라고요. 곡선을 그리다가 원단이 찢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며 완성된 매트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터프팅은 총을 쏘면서 하니까 색다르고 역동적이에요. 총 쏘는 소리가 좋고 직원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는 거 같아요”라는 김경민 사원은 집 창문에 걸어두고 동네방네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 “부서 직원들과 함께 한 취미 생활이 처음인데요.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눈 오늘이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라는 하상화 사원은 차량용 방식으로 활용해 방울이와 함께 드라이브하는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고 한다. 귀여운 햄버거 매트를 완성한 김수연 사원은 “하나씩 모아서 집을 조금씩 꾸며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고양이 매트를 만들고 싶어요”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임지선 과장은 “꽃 대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택에 분위기 메이커가 될 것 같아요. 퇴근 후 집에 가서 매트를 보면 오늘 추억도 생각나고 기분도 힐링 될 것 같아요”라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터프팅 매트를 볼 때마다 떠오를 오늘의 추억. 하얀색 터프팅을 알록달록하게 채웠듯이 이들의 모든 시간이 행복으로 채워지길 기대한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66

터프팅은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한다. 즉 노력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일 터. 힘을 쏟고, 마음을 담고, 추억을 새기다 보니 어느새 3시간이 훌쩍 지났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하니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을까.

99





부탁을 예쁘게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직장에서는 하루는 어쩌면 부탁(付託)을 받는 '부탁'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만약에 누군가 부탁을 한다면 다 들어줘야 할까? 물론 다 해주면 좋을 수 있다.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고마워할 테니까. 문제는 당신이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의 일을 그르치거나 자신의 시간 계획이 다 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들어주기 싫은 부탁,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글. 최정우 심리상담사



66

“안 대리 미안한 데 메일 보낸 거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출장비 정산을 오늘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허 주임, 이번에 입찰공고 떴지요? 경쟁사는 이번 입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위기 좀 살펴봐 줘요.”

“신00 씨, 엑셀 잘 하시죠? 이 중복된 값들을 걸러내야 하는 데
이것 좀 처리해 줄래요?”



99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상대의 부탁을 예쁘게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쿠션어를 사용하자.

“정말 그걸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게 부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도 마침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만...”

두 번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자.

“정말 그걸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요.”

“제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분야는 저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서요.”

“저도 마침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게 돼서요.”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자.

“정말 그걸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요. 대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연결시켜드려
도 될까요?”

“제게 부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분야는 저도 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서요. 대신 제가 해본 적이 있는 분야에
대해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저도 마침 해보고 싶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게 돼서요. 그 다음주에 돌아와서 해드려도 될까요?”

부탁을 잘 하는 것만큼 부탁을 잘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 부탁
을 거절하는 것은 부탁에 대해 거절하는 것이지 부탁하는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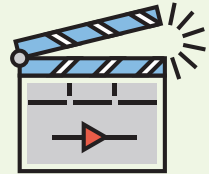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도 말했다. “나는 성공의 비결은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비결은 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해 알려주세요

K-water의 사업들, 여전히 어렵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Q. K-water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선도할까요?

K-water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하고, 'K-water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50년까지 78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Zero 물관리, 물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활성화, 흡수원 조성을 통해 K-water의 탄소중립을 넘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은 태양광, 수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수도물 공급체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관리 전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입니다. 이미 넷제로를 달성한 시흥정수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43개의 광역정수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water는 친환경 물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과 친환경 수력 발전을 통해 약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수온이 대기의 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징을 활용하는 수열 에너지를 건축물에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K-water는 친환경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로 만드는 그린수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조력을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상용화해 수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혁신 정책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K-water는 댐 유역과 수변 구역에 산림 생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K-water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탄소중립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퀴즈 EVENT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합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1.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얼마인가요?

Q2. 2030년까지 넷제로 정수장은 전국에 몇 개로 확대될까요?

Q. 방울이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천할까요?

이번 휴가는 도시 속 바쁨은 빼버리고 자연으로 떠난 방울이가 뜨거운 지표면을 뚫고 향하는 곳은 바로 집 앞에 위치한 작은 계곡입니다. 방울이가 계곡에 방문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슬기로운 여름생활’ 여기에 탄소중립을 더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울이는 도시락도 싸오고,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쓰레기봉투도 챙겨왔습니다. 다슬기 수경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관찰하던 방울이는 물속에 버려진 옷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 방울이는 줍깅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걷기 운동도 함께할 수 있는 줍깅을 한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줍깅을 하면서 수거한 쓰레기 대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과자, 음료수, 컵라면은 물론 배달 음식 포장지 등이었습니다. 방울이는 줍깅을 통해 포장을 줄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와서 분리수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하기,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사용하기 등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울이의 무해한 여름휴가 (feat.탄소중립)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방울이의 무해한 여름휴가(feat.탄소중립)'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3. 쓰레기도 줍고, 걷기 운동도 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Q4.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벤트 참여방법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쿠폰 10명
 접수 마감일 10월 25일
 선물 발송일 11월 15일경
 ※ 11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FOCUS 1

물산업 중소·벤처기업과 원 팀을 이루다

물산업 펀드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K-water는 물산업 중소·벤처기업과 원 팀(One Team)을 이루고 있다. 이번 물펀드 투자유치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K-water는 물산업 관련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물산업 기업의 성장을 돕다

지난 9월 7일, K-water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충청권 소재 물산업 펀드 투자유치 6개사를 방문해 ‘물산업 펀드 투자유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한 기업은 (주)파이어킴, (주)퀵캣, (주)파블로항공, (주)위플랫, (주)서지텍, (주)워터아이즈 등이다.

이번 방문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K-water가 출자한 물산업 펀드를 활용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유망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현 K-water 사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충청권에 소재한 물산업 기업 본사와 공장을 찾아 다양한 혁신 아이템의 제조공정과 서비스 시연, 사업화 추진 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 등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현 K-water 사장은 “K-water의 물관리 기술력과 노하우, 물산업 지원제도 등을 공유하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과 혁신 스타트업과 협업해 국가 물관리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66

K-water는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9



물산업 펀드를 조성하다

우리나라 물산업 분야는 기술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민간 투자업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으로 창업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K-water는 지난 2018년부터 8개 우량 자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해 물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지난해부터 물산업 모펀드 조성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3년간 2,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를 활용해 물산업 스타트업 30개사가 약 253억 원의 연계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경영자금을 지원받았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물기업이 기술을 사업하고 성장하도록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K-water의 중요한 역할이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K-water는 물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와 손잡고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글. 최행자 사진. K-water

FOCUS 2



지역사회와 함께 물문제 해법을 찾다

상생의 구심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손잡다

K-water는 지역사회와 함께 물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유역별로 물과 관련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 단위의 협업 체계를 구성·운영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그간 K-water는 상수원 수질 문제, 재해 보상, 낙후된 댐주변지역 지원 등 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K-water는 공사가 보유한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인력, 기술, 자원 등을 같이 연계·협업해 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성과에 대해 고루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동을 시작했다.

실질적인 물문제 해법을 주도하다

지난 5월, K-water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연계한 유역별 지역 물 관련 현안 5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물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과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부금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추진과제는 ▲대전지역 하천의 생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소양강댐(인제군) 지역 상생 및 관계인구 창출, ▲주암댐 상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링, ▲영주댐 상류 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보현산댐 물환경 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환경보호농법 브랜드화 등 총 5개다.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소외지역의 복원과 활력 조성을 진행 중이다.

K-water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K-water News

1



K-water, 에티오피아 수자원에너지부와 양해각서 체결

지난 8월 29일, K-water와 에티오피아 수자원에너지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티오피아 SDGs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K-water가 아프리카 물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한 에티오피아 현지 조사 이후, 양국의 물관리와 수력 분야의 후속 사업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에 따라 K-water와 에티오피아는 상수도 공급, 수자원 인프라,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발굴, 계획, 설계, 건설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K-water가 국제사회 물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협력하기 위해 아프리카 역내에서 체결한 최초의 협약으로, 에티오피아의 물분야 SDGs 달성과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거점 국으로서 에티오피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전망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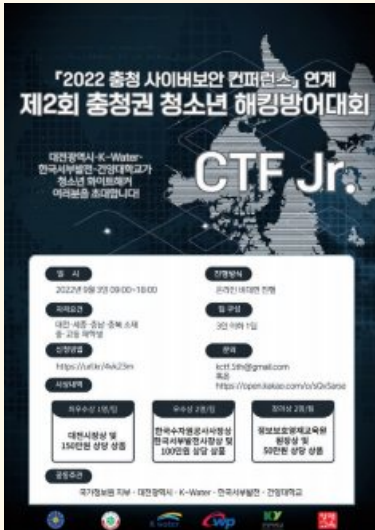
K-water,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31일, K-water와 IBK기업은행은 물산업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ESG 경영 확산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물산업 생태계 조성 및 ESG 가치경영 확대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관 간 지원 및 협력체계를 통해 물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15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조성, 총 400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K-water 물산업 관련 협력중소기업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년, 기업당 최대 7억 원 한도이며, IBK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게 연 1.58%p의 대출금리 자동 감면을 실시한다. K-water는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자금여건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성 향상과 물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제2회 충청권 청소년 해킹방어대회’ 개최

지난 9월 3일, K-water는 국가정보원 지부, 대전광역시, 한국서부발전, 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제2회 충청권 청소년 해킹방어대회(CTF Jr.)’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 참가자는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하로 구성된 팀들이 신청한 가운데 대회 진행은 온라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 점수를 획득하는 제퍼디(Jeopardy)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9월 27일 ‘2022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대회 시상식이 열렸으며, 최우수상 1팀은 대전시장상, 우수상 2팀은 K-water 및 한국서부발전 사장상, 장려상 2팀은 건양대학교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원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4



K-water, ‘K-테스트베드’ 하반기 통합 공모 실시

K-water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공-민간기관과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해 기술개발 및 실·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인 ‘K-테스트베드’ 하반기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

‘K-테스트베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게 공공-민간기관의 인프라를 개방해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연구개발과 시제품 및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은 판로 개척 등도 함께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K-테스트베드’ 출범 및 참여기관 간 공동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286건의 수요를 발굴, 약 197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실·검증을 지원했다.

K-water는 ‘K-테스트베드’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61개 참여기관 인프라 정보 통합 제공, 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 우수 제품에 대한 공공 판로 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K-테스트베드’ 하반기 통합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테스트베드 공식 플랫폼 (<http://ktb.kwater.or.kr/wis>)을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하합니다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9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윤○록(010-****-0953)



장○석(010-****-0834)



이○철(010-****-8033)



여○아(010-****-0286)



이○준(010-****-3332)



이벤트 선물 발송일 10월 15일경
※ 10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퀴즈있수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정○오 010-****-4120 오○주 010-****-8039
- 정○승 010-****-8463 박○정 010-****-4893
- 서○화 010-****-7500 정○아 010-****-0845
- 김○겸 010-****-5427 박○심 010-****-1225
- 오○욱 010-****-3380 김○희 010-****-9077

🎁 #kwater국제협력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 @pearlson5432 | @need_II | @dpfl.my | @jeh1292 | @hyo_bee_n
- @yj423844 | @happy0463 | @woogi_chacha | @9_tamin | @hitony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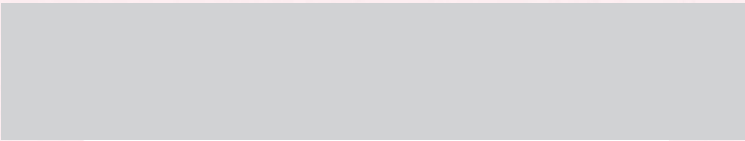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20명

- 김○나 010-****-3060 홍○표 010-****-8803 김○혜 010-****-0569 노○영 010-****-8835
- 민○록 010-****-0188 노○언 010-****-4460 김○주 010-****-8565 박○숙 010-****-0748
- 강○구 010-****-8925 강○성 010-****-1661 염○혜 010-****-7919 양○원 010-****-6361
- 이○임 010-****-7498 장○석 010-****-0834 이○아 010-****-4305 이○원 010-****-6722
- 윤○훈 010-****-9305 이○수 010-****-3307 권○정 010-****-7112 장○현 010-****-7761

K-water와 함께 하는 나만의 소통 도시 만들기

K-water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사랑나눔단을 중심으로 농촌 일손돕기부터 플로깅 행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부활동 등 전국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K-water의 국민 소통 도시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대청호 플로깅 행사

K-water는 대청호 오백리길에서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진(2MB)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명

접수 마감일 10월 25일

선물 발송일 11월 15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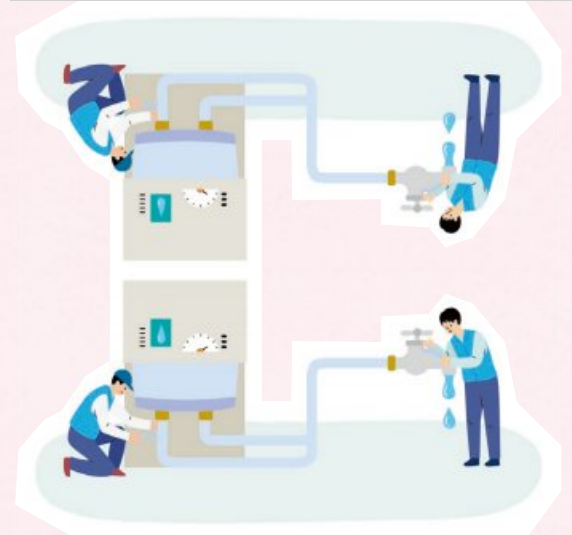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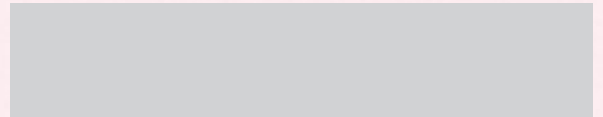
※ 11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소개됩니다.



K-water의 마스코트 '방울이'

방울이도 물사랑나눔단이에요~



행복가득 水 프로젝트

물이용·위생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된 주방이나 욕실, 수도배관 등을 개선하는 K-water의 사회공헌활동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 구독을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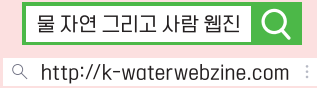
매월 K-water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구독해 주세요.



웹진 구독하는 방법

첫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 접속한다.



둘째

구독신청을 클릭한다.



셋째

카카오톡 / 이메일 중 선택한다.



넷째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벤트 응모하고 선물 받자!



이벤트 하나. 퀴즈있수다 이벤트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있수다 이벤트를 클릭한다.

2. 영상을 보고 정답을 작성한 다음 제출하기를 누른다.



▲ 웹진 바로가기



이벤트 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화면 캡처하기

이벤트 상품 커피 음료 쿠폰

이벤트 참여방법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다.

2. 채널 추가화면을 캡처한다.

3. QR코드를 스캔 후 이름, 연락처, 화면 캡처 사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누른다.



▲ 이벤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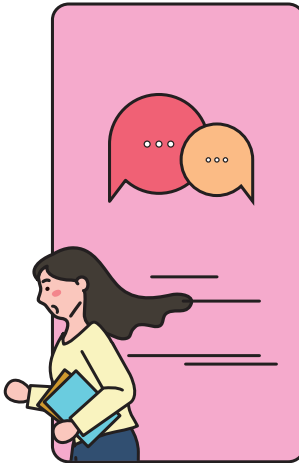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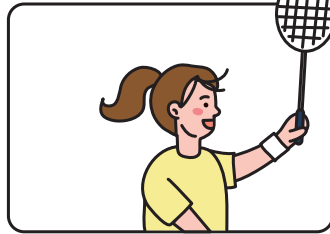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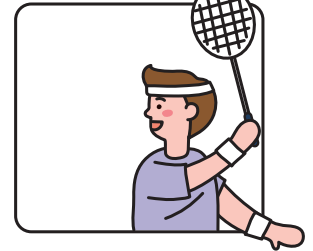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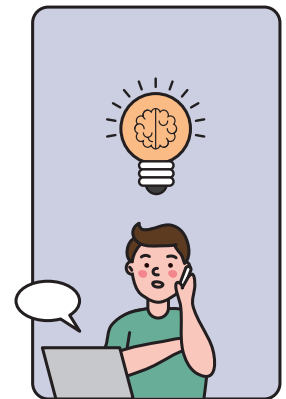
보호받고!



걱정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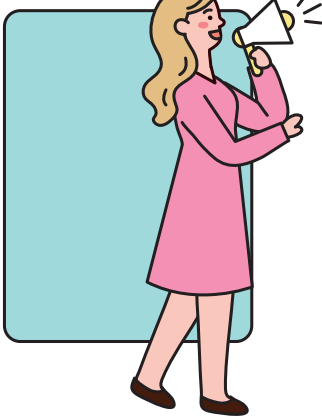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신고하고!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 1398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